‘기생충’ 오스카 트로피 몇 개 들어 올릴까

101년 한국 영화·92년 아카데미상 새 역사 쓸지 관심
국제영화상 이외에 작품성·감독상 수상 가능성도 거론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부문 후보작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힐스 새뮤얼 골드윈 극장에서 열린 오스카 위크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할리우드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과연 몇 개 트로피를 들어 올릴까.

올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9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다.

‘기생충’은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각본·편집·미술·국제영화상(옛 외국어영화상)까지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지난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부터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등 ‘한국 최초’ 수식어를 달고 수상 행진을 이어 온 ‘기생충’이 오스카 수상에도 성공하면 유럽과 북미에서 최고 권위상을 모두 휩쓸게 된다.

한국 영화는 1962년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출품을 시작으로 꾸준히 아카데미상에 도전했지만, 후보에 지명된 것은 ‘기생충’이 처음이다. 한국 영화 최초로 후보에 올라 단박에 수상에 성공하면 101년 한국 영화 역사도 다시 쓰게 된다. 아울러 어떤 상을 받느냐에 따라 92년 아카데미상 역사도 바꾸게 된다.

이 중에서도 국제영화상(옛 외국어영화상) 수상은 떼어놓은 당상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작품상과 감독상 수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작품상에는 총 9편이 후보에 올랐지만 ‘기생충’과 ‘1917’의 대결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1917’은 작품상뿐만 아니라 감독·각본·미술·촬영·분장·음악·음향 편집·음향믹싱·시각효과상 등 10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최근 공개된 ‘1917’은 절대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임을 보여줬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터 한복판을 가로질러야 했던 두 병사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1인칭 시점으로 전개돼 전장의 참상을 체험하게 한다. 시사 이후에는 역대 전쟁 영화 가운데 최고라는 평가가 나왔다.

외국어 영화로는 역대 11번째로 작품상 후보에 오른 ‘기생충’이 수상에 성공하면 아카데미 역사상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을 타는 첫 사례가 된다. 영국 가디언, LA타임스 등은 ‘기생충’ 수상을 점치는 기사를 실었다.

감독상 역시 봉 감독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1917’의 샘 멘데스다. 마틴 스코세이지(‘아이리시맨’), 토드 필립스(‘조커’), 쿠엔틴 타란티노(‘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 등 거장들도 함께 후보에 올랐다.

외신들은 봉 감독이 감독상을 받으면 ‘1917’이 작품상을 타고, 반대로 샘 멘데스가 감독상을 받으면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봉 감독이 감독상을 받는다면 아시아계 감독으로는 대만 출신 리안 감독 이후 두 번째다. 리안은 할리우드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2006), ‘라이프 오브 파이’(2013)로 두 차례 수상했다.

‘기생충’은 각본상 수상작으로도 유력하게 점쳐진다. 미국 작가조합 각본상을 받은 데 이어 영국 아카데미상 시상에서도 외국어영화상과 함께 각본상을 탔다. 경쟁작은 ‘나이브스 아웃’ ‘결혼이야기’ ‘1917’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다.

이 가운데 노아 바움백 감독의 ‘결혼 이야기’가 유력한 경쟁작으로 꼽힌다. 다만 ‘결혼 이야기’가 개인적인 이야기라면, ‘기생충’은 빈부격차와 계급갈등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다뤄 더 큰 공감대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

‘기생충’ 시나리오를 쓴 봉 감독과 한진원 작가가 각본상을 받으면 2003년 ‘그녀에게’ 스페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이후 외국어 영화로는 17년 만의 수상이다.

국내 영화 전문가들은 ‘기생충’이 2개 혹은 3개 정도 받을 것으로 관측한다. 한 영화 관계자는 “‘기생충’이 외국어영화상 이외에 작품상이나 감독상 중 하나, 각본·미술·편집상 가운데 하나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연합뉴스

록 밴드 그린데이 4년 만에 새 앨범

정규 13집 ‘파더 오브 올…’
내달 월드투어 내한공연

밴드 그린데이. 라이브네이션코리아 제공

다음달 내한공연을 여는 미국 펑크 록 밴드 그린데이가 4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했다.

워너뮤직코리아는 그린데이 정규 13집 ‘파더 오브 올…’(Father Of All…)이 7일 정오 발매됐다고 이날 밝혔다. 2016년 10월 내놓은 ‘레볼루션 라디오’(Revolution Radio) 이후에 내놓은 첫 신보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번 앨범과 동명 타이틀곡을 비롯해 ‘파이어, 레디, 에임’(Fire, Ready, Aim), ‘오 예!’(Oh Yeah) 등 수록곡을 차례로 먼저 선보였다. 이외에도 ‘미트 미 온 더 루프’(Meet Me On the Roof), ‘슈가 유스’(Sugar Youth), ‘정키스 온 어 하이’(Junkies on a High) 등 펑크 진수를 맛보게 하는 10곡이 수록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986년 결성된 그린데이는 빌리 조 암스트롱(보컬 겸 기타리스트), 마이크 던트(베이시스트), 트레 쿨(드러머)로 구성된다. 반항적이고 사회 비판적 가사가 특징으로, 1990년대 팝 펑크(네오 펑크)의 새 지평을 열어 펑크 대중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바스켓 케이스’(Basket Case), ‘웨이크 미 업 웬 셉템버 엔즈’(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아메리칸 이디엇’(American Idiot)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그래미 어워즈에서 5차례 트로피를 들었고, 2015년에는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다음달 22일 월드투어 일환으로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10년 만에 공연을 열어 한국 팬과 만날 예정이다. 연합뉴스

‘청춘 스케치’ 이규형 감독 별세… 향년 63세

고 이규형 감독.

영화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를 연출한 이규형 감독이 지난 7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3세.

고인은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뒤 영화 ‘사랑 만들기’(1983)의 각본 작업을 맡으며 영화계에 입문했다. 이후 조민수와 천호진이 주연을 맡은 ‘청 블루 스케치’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했다.

각본과 연출을 맡은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1987)로는 흥행에 성공했다.

고인은 이 영화로 대종상영화제 신인감독상도 거머쥐었다. 그 후 ‘어른들은 몰라요’(1988), ‘굿모닝!대통령’(1989), ‘난 깜짝 놀랄 짓을 할거야’(1990), ‘공룡 선생’(1992)과 애니메이션 ‘헝그리 베스트 5’(1995) 등을 연출하며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활발히 활동했다. 2000년대에는 ‘비무장지대 DMZ’(2004)와 ‘굿럭’(2006)을 만들었다. 연합뉴스

그룹 이달의 소녀 신보
56개국 아이튠즈 차트 1위

그룹 ‘이달의 소녀’가 지난 5일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미니앨범 ‘해시’(#) 발매 기념 쇼케이스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이달의 소녀 새 앨범이 전 세계 56개 지역에서 아이튠즈 앨범차트 1위를 석권해 국내 걸그룹으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이들이 지난 5일 발매한 미니앨범 ‘해시’(#)가 7일 0시 기준 56개 지역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내 걸그룹으로는 최다 지역에서 1위 기록이다. 이날 ‘해시’는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페루, 포르투갈, 브루나이, 과테말라, 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온두라스, 이집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장나라·고준·박병은·정건주
tvN ‘오 마이 베이비’ 출연

tvN은 배우 장나라와 고준, 박병은, 정건주가 올해 상반기 방영하는 새 드라마 ‘오 마이 베이비’에 출연한다고 7일 밝혔다.

‘오 마이 베이비’는 결혼은 안 하고 아이만 낳으려는 서른아홉살 여성과 세 남자 이야기를 다룬 로맨스 극이다.

장나라는 육아 잡지 차장 ‘장하리’ 역을 맡았다. 극 중 탁월한 업무 능력과 미모를 갖췄지만 10년 넘게 연애와 담쌓은 워커홀릭인 그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 ‘발칙한’ 도전에 나선다. 고준은 새로운 취미를 찾아다니는 ‘욜로족’ 프리랜서 사진가 ‘한이상’ 역으로 분한다.

박병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윤재영’을, 정건주는 육아 잡지사 신입사원 ‘최강으뜸’을 연기한다.

‘보이스3’, ‘터널’ 등의 남기훈 PD와 노선재 작가가 각각 연출과 대본 집필을 맡는다. 연합뉴스

10일(금)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걸어서 세계속으로 1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꽃길만 걸어요(재) 9:40 무한리필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살림하는 남자들(재)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나쁜 사랑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언니네 쌀롱 스페셜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맛 좀 보실래요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살맛 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딩동댕 유치원 9:30 원더볼즈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4:45 몰랑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5:10 로보카 폴리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 17:20 그림을 그려요 19:00 스파이더맨 20:00 머털도사 21:50 EBS 다큐프라임
12:00 KBS 뉴스 12 13: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13:50 KBS 재난방송센터 14:00 KBS 뉴스 14:10 보물섬(재) 15:00 콘텐츠 안테나(재) 15:50 동물의 건축술(재)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5 17:30 동물의 왕국	12:05 제보자들(재) 13: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날아라 슛돌이 뉴 비기닝(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리필 샐러드(재) 17: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7: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2:00 12 MBC 뉴스 12:20 호기심대장 카토 13: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13:20 헬로키즈 동물교실2(재)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나쁜 사람(재) 16:00 시장길 스페셜 17:00 5 MBC 뉴스 17:25 테마기행 길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5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클릭! NOW 제주(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제주 CBS FM 93.3㎒ 90.9㎒**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15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기생충 아카데미상 수상 특집 20:30 꽃길만 걸어요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3:00 더 라이브 23: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우아한 모녀 20:30 글로벌24 20:55 옥탑방의 문제아들 1부 21:30 옥탑방의 문제아들 2부 22:10 개는 훌륭하다 1부 22:45 개는 훌륭하다 2부 23:40 영화가 좋다(재)	18:25 생방송 오늘 저녁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스트레이트 21:50 배철수 잼 1부 22:30 배철수 잼 2부 23:10 언니네 쌀롱 1부 23:45 언니네 쌀롱 2부	18:50 네모세모 19:5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21:40 낭만닥터 김사부 2 22:20 낭만닥터 김사부 2 23: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부 23:4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2부	**KCTV** 7:00 KCTV 뉴스 8:30 내 별명은 대토령 9:30 KCTV다큐스페셜 10:30 취미로 먹고 산다 12:00 KCTV 씨네한수 12:40 KCTV 시청자세상 13:10 아슈토크 팡 15:10 스포츠 당구 더 레슨 17:00 KCTV 뉴스 18:00 취미로 먹고 산다 19:00 KCTV 뉴스 7 20:00 KCTV다큐스페셜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 서귀포시 FM 105.9㎒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10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과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밝은 내일을 꿈꾸자. 48년 문서 관련된 일은 손실이 예상되니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라. 60년 서두르면 화가 오니 여유가 필요하다. 72년 미혼자는 중매가 생기고 기혼자는 집안일에 분주. 자녀에게 신경쓸 것. 84년 변동보다는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추진하는게 좋다.

37년 사사로운 감정이나 오해로 언쟁하니 주의. 49년 진퇴를 놓고 힘들어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극복하라. 61년 내가 도와준 만큼 실속은 적다. 무리는 금물이고 욕심을 내지 말것. 73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고 변동하는 것보다는 자중함이 좋다. 85년 이성교제가 진행되나 또 다른 이성으로 고민한다.

38년 사석에서 한 말이 와전되니 언행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50년 과다한 기대나 행동은 금물. 시기자가 생긴다. 62년 숨이 트이는 형국. 분주히 활동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74년 재물욕이 강하여 망신수가 우려되니 정도를 지켜라. 86년 취직 또는 문서상 기쁜 소식이 있거나 이성교제.

39년 갈망하는 일이 눈앞으로 다가온다. 51년 변동시 불리하고 실패가 따르니 현상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 63년 자녀로 인하여 마음이 안 편하다. 자녀 몸에 찰과상 등이 우려. 75년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힘든 일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87년 취직, 직장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모님 문제로 바쁘다.

40년 가까이 있는 사람과 다툼보다는 배려할 것. 52년 일이 있으면 기쁘고, 없는 자는 돈 문제로 걱정이 생긴다. 64년 자녀로 인한 근심이 오니 먼저 전화를 할 것. 76년 아이에게 걱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임신도 되는 시기이다. 88년 잘난 척하면 선배 또는 상사에게 미움을 받고 오래도록 간다.

41년 업무에 인정받고 찾는 이가 많아진다. 53년 아랫사람 또는 자녀문제로 상담이 오간다.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 65년 도난이나 손재수 조심. 외출시 문단속 철저. 77년 계산상 착오가 생기거나 머뭇거리다, 손재가 발생하니 기회 포착이 포인트. 89년 돈 문제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이성문제가 발생, 언쟁 주의.

42년 조급함을 갖지마라. 성급함이 후회를 낳는다. 사업관련 금전 필요. 54년 자식의 보증문제로 고민이 있고, 분주하다. 66년 이성으로 인한 망신수 또는 구설이 우려되니 성회롱 조심. 78년 모임이나 친목이 길한 날, 결혼성사, 득자, 이성교제 청신호. 90년 주변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동료가 인정을 한다.

43년 책임이 무겁지만 원활히 해결하고 직감력과 노하우로 부러움을 얻기도 한다. 55년 초대를 받거나 내 역할이 때론 상대가 원한다. 67년 사소한 일에 참견시 큰 다툼이 되니 나서거나 간섭하지 마라. 79년 구매충동 또는 호기심이 강하게 나타난다. 91년 약속이나 모임에 참여하니 음주는 자중.

44년 좋은 일속에 흉이 도사리니 밀어붙이는 것은 자중해야. 56년 내 주장은 약하게, 상대의 주장을 많이 경청하는 것이 유익하다. 68년 자존심이나 자만은 집에 두고 일터로 향하라. 80년 마음껏 활동을 하거나 의욕이 필요하다. 친목모임 약속이 진행된다. 92년 이별에 상처가 되겠지만 또 다른 이성이 다가온다.

45년 배짱과 결단력이 필요하지만 독단적 행동은 자제하고 주변과 협동이 좋다. 57년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타인의 일에 간섭은 금물. 69년 시비거리나 구설수 등이 우려되니 사소한 일에는 유연해져라. 81년 취업, 직장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소식을 접한다. 93년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 일이 풀린다.

46년 명예 또는 이익이 있다. 아랫사람과 대화도 필요하다. 58년 투자는 매도와 매수의 시기를 잘 선택하듯 문서변화시 신중하라. 70년 활동량이 늘어나고 분주하며 이익은 서서히 나타난다. 82년 어떤 일을 행하기 전 경거망동은 금물이니 윗사람에게 공손하라. 94년 예상치 않던 일이 생기니 다시 외출하게 된다.

47년 직장에 문제 발생,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리 정돈은 기본. 59년 돈의 씀씀이가 커지고 허황된 재물욕에 갈등을 한다. 71년 강한 호기심으로 변화를 가져보려 하나 지금은 차분히 현실에 충실하라. 83년 이성간에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헤어짐도 온다. 95년 큰소리가 오가면 불리하니 여유가 필요하다.